

“향토음식 소중한 가치 아이들과 함께 나눠요”

나주시, 다음달 22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대상 미각교육 개강 전통음식 기호 증진·올바른 식습관 개선 중점...체험 위주 방식 진행

나주시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전통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나주시는 지난 24일부터 6월 22일 까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향토음식 미각교육'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향토음식에 대한 아동들의 기호 증진, 친밀감 형성을 통해 전통식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패스트푸드, 방부제 첨가 식품 등에 의

숙해진 식이 습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 10개소(총 173명)를 대상으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에서 상·하반기 10회씩 열릴 예정이다.

상반기 주제는 '나주 배로 만든 전통음식 및 김치', 하반기는 '향토음식을 활용한 전통장류'이다. 올해 미래세대 미각교육 강사 양성 심화과정 수료생 6명이 강사로 투입된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향토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오감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맛과 향, 조리 등 체험 위주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최대한 권장하고 대신 미각 체험키트를 별도 제작해 가정과 어린이집에 제공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통음식 교육을 통해 향토 먹거리의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고 가정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식생활 패러다임 전환으로



점점 잊혀져가는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결혼이주여성 5명 고등검정고시 합격

곡성군은 결혼이주여성 5명이 2021년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에 중등 검정고시 8명, 2020년 고등검정고시에서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검정고시반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대신 곡성군은 개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자 7명에게 학원비를 지원했다.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야간학원을 다니며 주경야독했고, 최종 5명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게 됐다.

곡성군은 검정고시 지원이 결혼이민자들의 도전의식,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적응과 자녀 학습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관내 식품위생업소 대상 상시 점검 추진 등 안전성 최선



담양군이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1 식품안전관리사업

안전처에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 ▲가점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추진했으며,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철저한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를 통해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농업인 위한 정책보험 홍보·가입 권장 추진

김순호 군수는 24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정책보험 홍보 및 가입 권장 등 군정 현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농업인들의 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25일 개장하는 ‘구례희망 나눔가게’ 참여 독려,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속 등 빈틈없는 군정 활동을 강조했다.

농기계를 많이 다루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농작물 또한 자연재난,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인 정책 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만 15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보

험대상농기계(12종)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모든 농업인들이 정책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구례군 내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감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24일부터 정상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구례군은 타인능해 정신을 계승한 구례희망 나눔가게를 5월 25일에 개장식을 진행하고 6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영농효율 높은 ‘드문 모심기’ 보급 앞장

화순군은 지난 21일 한천면 한계마을 들판에서 농주농협과 함께 전업농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드문 모심기’ 연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드문 모심기는 모판 파종량을 250~300g 정도로 늘리고 평당 50주, 주당 5본 내외로 드물게 모내기하는 재배기술이다. 사용되는 모판 수가 줄어 단위면적당 육묘와 이랑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다.

화순군은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3곳 30ha 면적에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상재해에 대응한 안정성과 적정 수확량 확보를 위해 ‘3.3㎡당 50주’ 식재물 기술보급 방향으로 설정하고 화순군 실정에 맞춰 재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황룡강 노란꽃장터’ 개장... 5~6월·10~11월 토·일 운영

아름다운 봄꽃이 만개한 장성 황룡강에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장성군은 지난 22일 황룡강 그라운드를골프장 주차장(생태공원)에 ‘황룡강 노란꽃장터’를 개장했다.

황룡강에서 열리는 최초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로, 장성군귀농귀촌협의회와 장성유통사업단, 삼체협동조합이 참여해 민·관 협업 형태로 운영된다.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신선한 농산물과 꽃(화훼류), 편

백제품, 새싹산, 산채 등 다양한 특산품이 마련됐다.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5월과 6월, 10월과 11월에 운영한다. 총 18회를 개장해 68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